

국내 IT 산업 경쟁력 지수 세계 19 위로 하락

- BSA, EIU 통해 국가별 IT 경쟁력 지수 보고서 발표
- 2007 년 이후 5 년 연속 하락 ... 3 위에서 16 계단 하락한 19 위 기록
- IT 특허 출원수 줄며 R&D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

[2011 년 9 월 27 일, 서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 www.bsakorea.or.kr, 공동의장 박선정, 황성현)이 세계적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T 산업 경쟁력 지수가 5 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BSA 가 EIU 에 의뢰해 조사 발표한 "2011 전세계 IT 산업 경쟁력 보고서(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경쟁력 지수 60.8 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66 개국 중 19 위를 기록, 전년 대비 3 단계 하락한 결과를 보였으며, 본 보고서가 최초로 발행된 2007 년 대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약 4 년에 걸쳐 13 계단 내려간 것으로 기록됐다. 실제로 2007 년 3 위, 2008 년 8 위, 그리고 2009 년 16 위에 이어 올해 19 위를 기록했다(2010 년 보고서 미발행).

전세계 선진국 66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 보고서는 각국의 IT 산업 환경, 즉 R&D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IT 산업 발전 지원도, IT 인프라 및 인적 자원과 법적 환경 등의 6 가지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조사 대상 14 개국 중 홍콩과 동일한 지수를 보이며 6 위에 머물렀다.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가 전세계 3 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수를 보였고, 그 뒤로 호주, 대만, 일본, 뉴질랜드가 각각 전세계 순위 8 위, 13 위, 16 위, 18 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와 홍콩에 바로 앞서 아시아 지역 상위 5 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IT 경쟁력이 종합적으로 떨어진 원인으로 IT 특허 출원수의 하락, 즉 R&D 환경 부문의 지표가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2009 년 8 위 대비 4 계단 하락한 12 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보고서에서와 달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결과값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강점인 IT 인적자원 부문의 지수가 2009 년 대비 2 계단 하락한 세계 4 위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서는 인적자원의 경우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단지 타국의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종합 순위의 하락 요인으로서 IT 산업 발전 지원도 지적됐는데, 이전 보고서 대비 세계 28 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일부 기업 및 기술을 편애하는 성향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전략은 최고의 점수를 받았으나, 기술산업 지원 정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비즈니스 환경, IT 인프라 및 법적 환경에서는 이전 보고서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비즈니스 환경의 경우 세계 26 위로, 2009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으며, IT 인프라 부문에서도 1 계단 상승한 19위를 기록했다. 특히 법적 환경에 있어 세계 21위를 기록하며, 이전 대비 12 계단이나 상승한 것이 주목할 점이기도 하다. 법적 환경 개선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IP 보호 및 권리 집행에 대한 미국무역대표부의 감시리스트에서 2009년 제외됐다는 점과 데이터 및 개인정보 관리법 등의 사이버 범죄 관리, 예방법의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선정 BSA 한국 의장은 "이번 보고서가 시사하는 가장 큰 주안점은 기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었던 IT 인적자원 지수의 하락과 IT 특허 출원수의 감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이는 그간의 하드웨어에 편중됐던 IT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통해 해당 산업으로의 인재 진입과 개발자들의 의지를 높여 양질의 산업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장려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홀리먼(Robert Holleyman) BSA 글로벌 회장은 "본 보고서의 지속적인 결과를 보면, 이제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한 국가에 편중된 독점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는 매우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환경이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오늘의 환경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IT 파워하우스로서 부상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BSA는 세계 주요 국가별 IT 산업 경쟁력의 상대 평가를 통해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EIU를 통해 정기적으로 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올해로 네 번째 공식 보고서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 및 보고서 원문은 웹사이트 www.bsa.org/globalinde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BSA 소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Business Software Alliance)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디지털 세상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단체로, 각국 정부와 세계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및 하드웨어 협력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BSA의 회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BSA의

프로그램은 저작권 보호와 사이버 보안, 무역 및 이커머스(e-commerce)를 촉진하는 교육과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BSA 의 회원사로는 Adobe, Agilent Technologies, ANSYS, Apple, Aquafold, ARM, Arphic Technology, Autodesk, Bentley Systems, CNC/Mastercam, Corel, Dassault Systèmes SolidWorks Corporation, Mentor Graphics Corporation, Microsoft, Minitab, NedGraphics, Orbotech, PTC, Progress Software, Quark, Quest Software, Rosetta Stone, Siemens, Sybase, Symantec, Tekla 및 MathWorks 가 있습니다.

[글로벌 웹사이트: www.bsa.org, 국내 웹사이트: www.bsakorea.or.kr]

[관련 문의]

이정미 AE 02-2084-9116 / 010-8526-1230 / jamie@briman.co.kr

김판희 본부장 02-2084-9111 / 010-5585-1810 / david@briman.co.kr